

GLOBAL CENTER

글로벌지원센터

‘글로벌지원센터’ 출범 조인식 개최

협회(회장 장홍순)는 지난 10일 국내 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를 본격 지원하기 위해 협회내 전문기구인 ‘글로벌지원센터(Global Centre)’를 설치하고, 각 분야별 공식 파트너를 선정하는 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.

이는 내수시장에서의 과당경쟁으로 벤처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, 이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돕기 위한 것이다.

협회는 벤처기업들을 상대로 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외마케팅 지원, 해외투자유치, 국내외 기업공개(IPO) 지원컨설팅 및 기업인수합병(M&A)을 중점 사업으로 지정하고 분야별 전문업체를 파트너로 선정했다.

협회 오형근 전무는 “많은 국내 벤처기업들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, 실제 글로벌화 추진과정에서 개별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축적된 노하우 부재 및 전문인력 부족, 현지 시장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” 며, “벤처기업협회 글로벌지원센터는 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벤처기업 글로벌 비즈니스의 대표창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확신한다”고 그 취지를 밝혔다.

협회는 앞으로 글로벌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 우수 벤처

기업들의 글로벌화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.

한편, 이번 조인식에는 벤처기업협회 회장단과 각 분야별 파트너 등이 참석, 협약서에 서명하고 글로벌지원센터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.



왼쪽부터 법무법인 대륙 김태희 대표, 딜로이트투쉬 이재술 대표, 법무법인 발해 박재홍 대표, B&J Global 김병호 대표, 벤처기업협회 오형근 상근임원, 한누리투자증권 안길룡 대표, CDR데카디자인 이은실 대표, ACPC 이병훈 대표, 이트레이더 이홍렬 대표.

글로벌지원센터 파트너

